

배제, 몰화 그리고 무시: 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비판이론적 분석

김 원 식*

주제분류 사회철학, 정치철학

주요어 배제, 몰화, 무시, 한국사회, 분배, 인정, 새로운 사회갈등

요약문

분단 이후 한국 현대사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더욱 강화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더 이상 모방할 선진국도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만 달려갈 수도 없는 현재 우리의 상황은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오늘날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 상황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배제, 몰화, 무시라는 개념들을 핵심어로 삼아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적 갈등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배제, 몰화, 무시라는 개념의 일반적 의미와 위상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도출하게 된 이론적 배경 등을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역사적 변화를 고찰하고, 세 가지 개념들을 축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 갈등 요인들에 대한 범주적 분류와 종합적 이해를 시도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의 의미와 그것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연구위원

1. 서론

분단 이후 한국 현대사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이라는 평가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오늘날 한국사회가 지구촌에서 가지고 있는 높은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요인들이 더욱 확대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신분의 고착화, 높은 자살률, 사회적 불안감과 피로감의 확산 등은 한국사회의 외형적 발전이 가진 그늘진 이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러한 사정은 일반 시민들의 독서 풍토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열독 현상의 이면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읽어내고, 『위험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우리 사회 시민들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감을 읽어내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무리한 억측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¹⁾

그런데 혹시 이러한 이중적 상황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외형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모방할 선진국도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만 달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눈을 돌려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기존의 목표를 재점검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명목 진보’(Brutto-Fortschritt)와 ‘실질 진보’(Netto-Fortschritt)’의 구별을 제안하는 오페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들만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²⁾ 전 지구적 환경 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 안보 위협 등의

1)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과 울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물결, 2006 그리고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문제는 더 이상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기존의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 지구적 추세와 더불어 외형적 성장 이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오늘날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 상황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배제, 물화, 무시라는 개념들을 핵심어로 삼아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적 갈등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배제, 물화, 무시라는 개념의 일반적 의미와 위상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도출하게 된 이론적 배경 등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 개념들을 축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 갈등 요인들에 대한 범주적 분류와 종합적 이해를 시도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의 의미와 그것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배제, 물화 그리고 무시

배제, 물화, 무시라는 개념은 그간 비판이론 내부에서 현대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와 병리 현상들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이 세 개념들은 분배-인정 개념을 둘러싸고 그간 비판이론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논쟁과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에 의해 제시된 ‘생활세계 식민화 테제’와 그에 대한 평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배제, 물화, 무시라는 개념들이 가지는 일반적 의미와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한 후, 비판이론 내에서 진행된 기존

2) 클라우스 오페, 고지현 옮김, 『오늘날 정치적 ‘진보’란 무엇인가?』,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편, 『베스텐트 한국판 2013/1, 사월의책, 2013.

논의 맥락들에 대한 평가와 이 개념들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한다.

(1) 세 가지 개념의 의미

배제, 몰화, 무시라는 개념은 가속화되는 경쟁 속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시민들의 심리적 황폐화 및 피로 현상 등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와 병리현상들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 필자가 선택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배제(排除, exclusion)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례와는 달리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정의 다시 말해 ‘불평등 분배’를 지시하고 있다.³⁾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부정의를 지시하기 위해 배제라는 용어를 앞세운 이유는 오늘날 극심한 경제적 부정의는 고전적인 착취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배제에 더 근접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예를 들어 바우만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가장 분명하고 폭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상의 문제는, 현재 전 지구적 국면에서 볼 때, 착취로부터 배제로 변화하고 있다.”⁴⁾

다음으로 무시(無視, disrespect)는 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문화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부정의를 표현하고자 선택된 개념이다. 사회적 인정과 무시의 개념은 테일러나 호네프와 같은 대표적 인정이론가들이 주목한 중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마

3) 배제 개념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보다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럽 사회의 경우 단순한 물질적 복지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포용의 개념을 통해서 사회통합 문제에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문진영,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62, no.2, 2010, p.91 이하 참조.

4) Zygmunt Bauman, *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p.41

5)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그리고 악셀 호네프,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

지막으로 물화(物化, reification)라는 개념은 주로 시장경제의 경쟁과 효율성 논리에 포획되어 사물화 되고 도구화 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지시하고 있다. 물화 개념은 마르크스에서 발원하였으며 이후 루카치와 프랑크푸르트학과 전통에서 재해석 되어 왔다.⁶⁾

이러한 세 가지 핵심 개념들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 속에 편입되어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 문제들을 범주적으로 분석하고 포착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삶으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착취 받을 기회조차 경험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 정상적인 노동자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은 경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문자 그대로 배제되어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폐쇄적이고 서열화 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인정 질서는 소수자들에 대한 무시를 확대하고 있다. 뿌리 깊은 학벌의식과 남성 중심주의로 인해서 우리 사회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무시의 경험을 겪어 왔으며, 외국인 이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집단 의식은 이방인들에 대한 무시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적 경쟁의 격화 속에서 경쟁과 효율성 논리가 사회생활 전반을 포획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 병리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쟁과 효율성 논리는 사회구성원들의 욕망 구조 자체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과 교육 등 문화적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 영역들을 침식해 들어가 그 영역들에 내장된 고유한 논리들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러한 물화현상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저항들 역시 급속하게 분출하고 있다.

정투쟁, 사월의책, 2011.

6) 김원식, 「물화(物化) 비판과 한국사회」,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 23집, 2012 참조.

이와 같이 배제, 몰화, 무시라는 개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와 병리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선택한 개념들이지만, 이 개념들은 다양한 독자적인 이론적 기원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 개념들의 위상을 밝히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적 맥락들에 대한 고찰은 물론이고 그러한 맥락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범주 선택이 과연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2) 세 가지 개념들의 논의 배경과 위상

먼저 경제적 배제와 문화적 무시 개념은 분배와 인정 개념을 둘러싼 공간의 논의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등장 이후 사회갈등의 핵심 축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갈등으로 규정되어 왔다. 계급 갈등의 본질은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분배 갈등으로 볼 수 있으며,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그 핵심이 생산수단의 소유 문제에 있다고 보았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잉여 노동을 착취하며, 이로 인해 근본적인 분배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러한 분배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제시한다.

분배 갈등을 사회갈등의 핵심으로 보는 이러한 경향은 냉전 체제 하의 이념 대립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주의 진영이 계급 문제와 분배 정의를 핵심 이슈로 삼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진영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대응은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정의와 관련된 소위 ‘분배 패러다임(distributive paradigm)’이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게 된다.⁷⁾ 분배 패러다임에서는 사회정의를 경제적 자원의 공정한 분

배와 동일시한다. 이와 같이 정의를 분배 정의로 이해하는 경향은 서구의 대표적 정의론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롤즈를 비롯하여 많은 경우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⁸⁾

그러나 분배 패러다임의 이러한 지배적 위상은 외적으로는 냉전의 종식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고 서구사회 내부에서는 이주의 증대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도전을 배경으로 하여 점차 흔들리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냉전의 종식은 더 이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없다(TINA)는 사고를 확산시켰고, 냉전 상황 속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등장이 그간 분배 갈등을 일정부분 해소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체제의 몰락은 민족 중심의 새로운 ‘정체성(Identity) 정치’의 부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 지구적 이주의 물결 속에서 서구사회들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인정과 무시의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존의 ‘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도전들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이제 ‘차이에 대한 인정’이 사회정의의 핵심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차이에 대한 인정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제 분배 패러다임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간과하거나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판되며, 나아가서는 무시야말로 사회 부정의의 진정한 기원이라는 인식도 확대되어 나가게 된다.

정의를 경제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동일시하는 분배 패러다임은 첫

7) 정의에 관한 ‘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 및 비판에 대해서는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8)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 그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의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책, p.26). 아이리스 영은 이외에도 분배 패러다임에 구속되어 논의를 진행하는 인물들로 W. G. Runciman, Bruce Ackerman, William Galston 등을 꼽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논의를 비판하는 David Miller도 여전히 분배 패러다임에 구속되어 있고, 마르크스주의자인 Edward Nell과 Onora O'Neill, Kai Nielsen 역시 분배 중심의 정의관을 전체로 그들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Iris Marion Young, 앞의 책, pp.16-17).

제, 경제적 재화의 분배 결과에만 주목함으로써 불공정한 분배를 야기하는 다양한 제도적·구조적 맥락들을 간과하기 쉽고, 둘째,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회, 권리, 권력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현존하는 다양한 지배와 억압들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⁹⁾

먼저 분배는 단순한 경제적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사회 내부에서 여성이나 외국인 이주자들과 같은 소수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무시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해 동등한 기회와 권리,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경제적 자원의 직접적인 재분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결국 경제적인 부정의의 참된 기원은 사회적 인정-무시 질서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악셀 호네프트의 경우는 정의를 동등한 인정으로 규정하고 분배 문제를 인정이론의 틀 속에 포섭해 내고자 하는 ‘인정일원론’의 입장을 제시하게 된다.¹⁰⁾ 이에 따르면, 분배 갈등의 진정한 기원은 인정투쟁에 있으며, 분배 부정의는 왜곡된 인정질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공헌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¹⁾

9) 이에 대해서는 김원식, 「정의론과 여성주의」,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24집, 2012 pp.25-31 참조.

10)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London · New York: Verso, 2003.

11) 사실 분배 불평등에 대한 사회이론적 설명과 관련된 호네프트의 입장은 분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그는 특정한 문화적 해석이 경제적 분배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는 자신의 목적이 시장 질서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런 해석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Christopher F.

그러나 가속적 지구화 과정이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분출하면서 분배와 인정 개념을 둘러싼 논의의 외부적 환경은 다시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는 분배 요구는 분배 갈등이 해소되거나 완화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라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정 개념으로의 전회가 경제적 분배 정의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진정한 문제의 기원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자성과 비판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다.¹²⁾

나는 현재의 상황과 이론적 정합성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분배 갈등과 인정 갈등 모두를 동시에 포섭하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배제와 무시 개념도 이러한 틀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제와 무시는 각각 불평등 분배 및 문화적 무시와 관련되며, 이들은 독자성과 동시에 중첩관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경제적 배제는 일차적으로는 자립화된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기인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인정질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및 배제는 일차적으로 세계시장 차원의 경쟁 격화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적 인식 그리고 빈곤과 실업 등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적 인식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문화적 무시 역시 일차적으로는 왜곡된 문화적 인정질서에서 기인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배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Zurn, "Recognition, Redistribution, and Democracy: Dilemmas of Honneth's Critical Soci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3:1, 2005, pp.113-4.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그린비, 2010, 특히 p.180 이하 참조. 그녀는 이를 문화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결합으로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인 문화적 낙인과 무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폐쇄적인 ‘우리’ 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문화적 무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배제와 무시의 개념은 각각 독자적인 발생 원인과 차원을 갖는 동시에 밀접한 중첩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경제적 배제가 없는 문화적 무시는 없으며, 문화적 무시가 없는 경제적 배제도 없다. 그러나 양자는 독자적인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서로에게 환원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문화적 무시의 개념만으로 경제위기가 초래한 실업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며, 경제적 배제의 개념만으로 부유한 외국인 이주자가 무시 받는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제와 무시 개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정의론과 관련하여 정의의 내용을 분배와 인정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차원화 할 것을 요구한다. 나는 낸시 프레이저의 제안에 따라서 정의를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분배와 인정을 정의의 독자적인 두 차원 혹은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¹³⁾

다음으로 물화 개념은 마르크스 이래로 진행된 물화 비판에 대한 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물론 물화를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선택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사회 진단에 대해 물화 비판이 상당히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물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식민화 테제’가 전체적인 설명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체계와 생활세계 개념과 양자의 분화에 관한 이층위적

13) Nancy Fraser,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Dilemmas of Justice in a ‘Post-Socialist’ Age”, *New Left Review* 212, 1995 참조.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삼아서 새로운 형태의 물화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¹⁴⁾ 그는 물화 현상의 원인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근대 관료주의 국가 체제가 생활세계 질서를 침식하는 데서 찾고 있다. 시장과 국가 행정의 작동 매체인 화폐와 권력이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해 유지되는 생활세계 질서를 대체하고 침식하는 데에 현대사회 물화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대진단은 1세대 비판이론가들과 달리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 수준을 넘어서 있으며, 근대사회의 분화에 대한 사회이론적 해명에 바탕을 두고 물화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경험적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¹⁵⁾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물화 비판과 달리 그는 물화의 원인을 자본주의 상품관계와 더불어 근대적 행정 국가 체제로 규정함으로써 물화 비판을 보다 다층화 하였다. 또한 물화 현상을 자율적인 의사소통적 삶의 질서에 대한 침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 질서나 근대 국가의 행정 체계의 성립 자체를 무차별적으로 물화 현상으로 규정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물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폐나 권력과 같은 매체에 의해 조절되는 체계 질서의 성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서들이 자율적 의사소통에 의해 유지되는 삶의 질서를 침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그의 시대진단 테제를 신(新)사회운동의 등장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신사회운동을 생활세계 식민화 현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운동이 물질적 보상을 통해 해소될 수 없는 ‘삶의 질’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그는 잘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글의 작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생활세계 식민화 테제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2, 6장 참조.

15) 프랑크푸르트학파 1세대의 물화 비판에 대해서는 M. 호르크하이머, Th. W. 아도르노, 김유동 외 옮김,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 1995.

이상과 같이 배제, 물화, 무시의 개념은 각각 독자적이고 다양한 이론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개념들의 종합적 위상을 제시하는 작업은 그러한 맥락에 대한 일정한 비판적 평가와 재구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앞서 배제와 무시 개념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이미 상술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두 개념과 물화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화 개념을 도입하는 단초가 되었던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식민화 테제’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¹⁶⁾ 그의 테제는 물화 비판의 단초가 될 수는 있지만, 앞서 우리가 제시한 배제와 무시 개념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의 식민화만을 문제 삼을 뿐, 자본주의 경제 체계와 생활세계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부정의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배제와 무시의 개념을 통해 하버마스의 시대진단이 가지는 제한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배제-무시 개념과 물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물화 현상은 배제-무시 현상과 중첩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물화 현상은 첫째, 그것이 인간 욕망 자체의 물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배제-무시 현상의 근저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그것의 구체적 발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갈등 역시 특정한 집단을 넘어 전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도 배제-무시 현상과 중첩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배제나 문화적 무시는 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그런 한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해당 집단에 대한 동등한 분배나 인정, 즉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한다. 반면에 물화는 인간의 내면적 욕망의 왜곡과 획일화라는 측면에서 보든, 아니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갈등의 성격과 관련하여 보든 해당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전면적인 영향을 미

16)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원식, 「생활세계 식민화론의 재구성: 배제, 물화, 무시」,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18집, 2009.

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그로 인한 특
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환경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특정 집단에게만 국한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몰화의 극복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과 관련된 정의의 실현의 문제
를 넘어 욕구와 삶의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실 배제, 몰화, 무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진단
을 시도하는 작업은 위에서 살펴본 세 개념들의 위상과 관련된 논의를
넘어 이러한 비판들의 규범적 근거를 밝히는 작업과 상이한 비판 모델
사이의 결합 방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명도 필요로 한다. 배제나 무
시 비판과 관련하여 ‘동등한 참여’로서의 정의를 포괄적 정의로 설정한다
고 하더라도 몰화 비판의 규범적 근거를 무엇으로 설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정의 비판과 몰화 비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넓은 의미의 자유 개념을 통해서 두 비판의
규범적 근거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 정도만을 해두고자 한다.
자유로운 삶이란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요구와 판단에
따라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오직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이성적 법칙에 따라서만 자신의 삶을 규제하는 존
재인 동시에 자신만의 진실한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자율성(Autonomy)’과 ‘진정성
(Authenticity)’ 개념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⁷⁾ 자유로운 존
재로서의 인간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행위하며 스스로
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포괄적 자유의 이념은 인간의 자율성의 실현 조건과 관련된

17) 자율성(autonomy)과 진정성(authenticity)을 도덕적 주체가 성립하기 위한 두 축으
로 설정하는 시도로는 Carlos Thiebaut, "The logic of autonomy and the logic
of authenticity, a two-tiered conception of moral subjectivity",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 23 no. 3, 1997, pp.93-108 참조.

‘동등한 참여’로서의 정의와 물화되지 않은 진정한 욕구의 문제와 관련된 진정성 문제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개념, 이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의 정당성 문제는 독자적인 논의를 요구할 것이므로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하며, 정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규범적 사회비판과 물화 비판과 관련된 현시적 사회비판 사이의 관계 설정 문제는 각주에서 필자의 기존 연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¹⁸⁾

3. 한국사회의 중층적 갈등 구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배제, 물화, 무시 개념은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 사회갈등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필자가 선택한 개념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현대사회 일반의 구조적 갈등 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이러한 일반 개념 이외에 한국사회의 특수한 갈등 맥락과 요인들에 대한 검토 역시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먼저 한국사회 갈등 구조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한국사회 갈등 상황 전반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1) 한국사회 갈등 구조 변화

현재 한국사회는 복합적, 압축적 갈등이 일상화 되는 국면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복합적, 압축적 갈등 상황은 한국사회의 독특한 근대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층적인 갈등 상황들이 누적되어 온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불과 한 세기만에 식민지배와 해방, 건국과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지구화와 정보화 단계를 급속히 경과하여 왔으며,

18) 이에 대해서는 김원식, 「사회비판의 두 유형과 공조 방안」,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21집, 2011 참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갈등의 내용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사회갈등의 변화는 단절의 과정 혹은 직선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연속과 중첩의 과정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유형의 사회적 갈등 형태가 다음 시기에서 소멸한다기보다는 변형된 형태로 중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어 이념 갈등의 경우를 보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국사회 이념 갈등의 뿌리는 멀게는 식민지 해방 투쟁 과정과 건국 과정에서 비롯되며, 그 이후에도 역시 남과 북의 분단 상황 속에서 이념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며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분배 갈등의 경우 역시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의 뿌리가 산업화시기에 형성되었던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 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기별로 그 형태가 변화되면서 연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갈등 형태들이 중첩되어 연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사회 갈등의 전반적 변화 추이에 대해 대략적인 시기적 구별을 제시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는 한국사회 갈등의 변화 추이를 아래 도표와 같이 세 시기로 구별하여 분석하고 있다.¹⁹⁾

1980년대 중반 이전을 사회갈등이 잠복되고 억압된 시기로 규정하는 것은 그 분석 시기를 주로 1960-70년대에 국한하는 경우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한국사회는 억압적 정권 하에서 사회적 저항과 갈등이 상당 부분 억압, 통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문제, 열악한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 요인들이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갈등 요인들이 직접적인 사회갈등으로 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주된 사회갈등은 주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정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 정건화,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동향과 전망』 71호, 2007, p.31 <표2> 참조

시기	1980년대 중반 이전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21세기-
갈등의 표출	갈등 잠복, 갈등 억압	갈등의 폭발적 표출	갈등의 일상화, 현재화
갈등의 영역	국가-정치영역	시장-경제영역	사회-시민사회영역
갈등의 형태	정치 갈등, 이념 갈등 (냉전-분단체제, 권위주의 정부)	경제 갈등, 분배 갈등 (성장드라이브, 재벌체제)	복합 갈등, 다원적 갈등 (노동, 복지, 환경, 세대갈등 등)
갈등의 결과	정치체제의 주기적 위기 (체제유지 비용의 누진적 증가 →정치체제의 민주화)	정치, 경제적 민주화, 사회의 분배구조 개선 (임금상승과 대등한 노사관계)	시스템 효율성 저하, 신뢰의 부재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죄수의 딜레마, 집합행동의 딜레마)

그러나 1987년 민주항쟁과 이후 민주화 과정을 매개로 하여 그간 억압되었던 사회갈등이 분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기 노동운동의 성장과 투쟁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분배 갈등이 당시 한국사회 갈등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단절적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21세기를 갈등의 일상화 단계로 갈등의 내용을 복합갈등으로 규정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갈등 축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의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민주화 이후, 특히 90년대에 진행된 시민운동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환경이나 위험과 관련된 시민들의 새로운 감수성의 등장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또한 이 시기에 결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인정 갈등 요인이 강화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형성된 현재 한국사회의 복합갈등 국면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사회갈등 요인들이 지구화 및 정보화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이러한 갈등 요인들이 새롭게 등장한 갈등 요인들과 중첩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변화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를 포함하여 한국의 근현대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국사회 갈등 전반의 변화 추이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사회 갈등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 요인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만을 추가적으로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한국정치의 주요 전선을 규정하는 진보-보수, 산업화-민주화 세력 사이의 대립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이 두 갈등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한 사회의 모든 갈등이 표출되고 해소되는 장(field)이다.²¹⁾ 때문에 한국사회의 구조적 갈등 요인들 역시 이러한 장을 매개로 변형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은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통해 독특한

20)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에 대해서는 권용혁 외,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2006의 1장 동아시아 3국 시민사회 비교 연구 참조.

21) “부르디외는 장을 기존 행위자들의 관계를 변형하거나 유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힘의 대결의 공간으로 본다. 즉 장은 행위자들(또는 위치들) 간에 권력과 위신을 추구하는 투쟁의 공간이다. 현택수,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이론』, 비판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제32권, 1996, p.94. 그리고 정치 일반에 내재하는 근본적 갈등적 성격에 대한 고찰로는 상탈 무페, 이보경 옮김,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특히 p.82 이하, p.221 이하 참조.

형태로 굴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²²⁾ 분단 이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는 반공주의의 지배하에 한국사회 내부의 이념적 다양성이 극도로 억압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 이후 이념 갈등은 소위 ‘남남 갈등’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는 한국사회의 진보-보수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²³⁾

지역 갈등의 경우 역시 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 속에서 배태된 고유한 사회갈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호남 지역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역사적, 지역적 원인들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현대 정치사 및 지역개발에서의 편차가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²⁴⁾ 영호남 지역주의는 여러 차례의 투표 결과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현실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에서 특수한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⁵⁾

냉전 체제의 소멸과 북한의 쇠락, 지역 갈등을 상쇄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인들의 부상 등으로 인해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은 향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어도 통일 이전까지 북한 문제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한국사회의 모든 담론을 삼켜버릴 거대한 잠재력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22) 이념 갈등과 관련하여 진보-보수의 의미와 한국적 논의 맥락에 대해서는 홍윤기,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진보-보수-관계’의 작동과 그 한국적 상황」,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진보와 보수』, 이학사, 2002 참조.
23)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우현, 「한국사회에서 ‘진보/보수 간 이념적 대립 구도’의 왜곡화-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한 내 갈등 사태’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진보와 보수』, 이학사, 2002 참조.
24) 최장집, 손호철, 황태연 등은 공히 지역 갈등이 경제적 갈등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기숙,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31(2), p.207 참조.
25) 우리 사회에서 지역 갈등은 이념 갈등과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의 한 조사에서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호남은 63.9%, 영남은 34.3%의 지지를 나타낸 바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편, 『2009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p.92.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두 거대 정당 사이의 경쟁이 계속되는 한에서 지역 갈등 역시 한국의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한국사회 갈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두 요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 한국사회 갈등의 중층성

이미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압축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누적 확대되어 온 한국사회 갈등 요인들은 현재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중층적인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⁶⁾

거친 방식이기는 하겠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중층적 갈등 구조를 도표화 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사회 갈등 구조 변화에 대한 통시적(通時的)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하며, 둘째, 각각의 갈등 요인들 사이의 중첩관계 및 상호작용도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배제	무시	물화
갈등 요인	분배 갈등	인정 갈등	새로운 사회갈등
현상 형태	계급/계층갈등	소수자 갈등	공공 갈등 (환경, 위험 등)
정치 형태	계급 정치	정체성 정치	생활 정치
	이념 갈등/지역 갈등		

위의 도표는 앞서 제시한 배제, 무시, 물화 개념에 기초하여 분배 갈등

26) 복합 갈등사회, 압축 갈등사회 등의 개념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대엽, 「한국사회의 전환과 사회통합의 패러다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 『한국사회』 제7집 1호 및 박길성,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 『한국사회』 제9집 1호, 2008 참조.

등, 인정 갈등, 새로운 사회갈등을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 갈등 요인들로 범주화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화는 오늘날 발전되고 분화된 현대사회 전반의 공통적 갈등 구조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각각의 갈등 요인들은 우리 사회의 구체적 조건 속에서 특수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표의 하단에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을 다른 차원으로 구별하여 표시한 것 역시 한국사회 갈등이 가지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세 가지 구조적 갈등 요인들의 중층성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려본다면, 분배 갈등 요인들이 변형된 형태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정 갈등 요인과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들이 중첩되고 있는 형국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양극화로 상징되는 한국사회 분배 갈등 요인은 이미 산업화시기에 배태되어 현재 지구화 및 정보화를 배경으로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인정 갈등 요인과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은 개인화-다원화 추세와 강화, 이주의 증대, 시민사회의 부상 등을 배경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 가지 갈등 요인들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배제와 무시의 관계에 대한 고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분배 갈등과 인정 갈등은 강한 중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분석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부와 명예가 중첩되고 빈곤과 무시가 중첩되면서 한국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²⁷⁾ 현재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는 교육을 매개로 한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신분 세습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²⁸⁾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주의 증대를 배경으로

27) 한국사회 양극화 실태에 대해서는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집문당, 2008 참조.

28) 사회적 이동성 저하와 관련하여서는 강신욱, “사회적 이동성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2010 참조.

우리 사회 내부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타자’는 소수자의 포용 및 인정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²⁹⁾

또한 ‘기업사회’나 ‘시장전체주의’로 표현되는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사회체제의 등장, 성장과 효율성 위주의 공공 정책 등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 욕망이 왜곡되고 몰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환경, 위험, 인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갈등 역시 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³⁰⁾ 물론 경쟁과 효율성 위주의 사회 풍토가 분배와 인정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들은 분배나 인정 갈등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 가지 구조적 갈등 요인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을 매개로 굴절되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원화 되고 민주화 된 현대사회에서 사회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정치는 이러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해소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화 된 민주주의 정치의 틀 속에서 사회갈등과 요구가 대표되고 해소되지 못할 때, 관련 당사자들은 정치적 무관심 상태에 빠지거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간 우리는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되고 거리의 정치가 분출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을 축으로 하는 현재의 정치 구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갈등 요인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사회갈등 요인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정치구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국정

29) 김원식, 「소수자의 포용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심화」, 국제문제조사연구소 편, 『정책연구』, 통권 150호, 2006 가을 참조.

30) 기업사회 개념에 대해서는 김동춘,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길, 2006, pp.13-32, 시장전체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정일, 『시장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 생각의 나무, 2008, p.131 이하 참조.

치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주제를 넘어서는 내용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제도 정치의 틀 속에서 사회갈등 요인들이 표출되고 대표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4. 남겨진 문제들

지금까지 이 글은 배제, 물화, 무시라는 개념을 핵심어로 삼아 한국사회 갈등 구조 전반에 대한 상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오늘날 한국사회 내부 갈등의 중층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사회 갈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한국사회 주요 갈등의 목록에 대한 선별은 불완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³¹⁾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은 현대 사회 부정의와 병리현상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그간 비판이론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들에 대한 재구성을 기초로 삼아 현대사회 일반의 갈등 요인들에 대한 범주적 구별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범주들을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갈등 요인들을 범주화 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에 대한 고려를 위해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일반적인 범주로 포착하기 어려운 이념 갈등 및 지역 갈등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갈등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분류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사회의 중층적 갈등 구조 전반에 대한 상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할

31) 예를 들어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공편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 통합』(인간사랑, 2007)의 경우에는 인정 갈등 요인이나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 갈등 요인 전반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사회통합지표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 노대명 외,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사회통합위원회 2010-2)와 강신욱 외,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II)」(사회통합위원회 2011-1)에서도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제, 몰화, 무시 현상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은 한국사회 갈등 요인들 사이의 중첩성과 상호관계를 해명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령 배제와 무시 개념을 정의론과 연관시키는 작업은 사회갈등의 이해와 관련하여 규범적 관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론적 작업에는 많은 남겨진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첫째, 이 작업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한국사회 갈등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사회갈등 실태 및 사회갈등 요인들 사이의 상호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경험적인 접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사회의 고유한 갈등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넘어서 이 요인들이 세 가지 사회갈등 요인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사회 갈등의 중층성에 대한 이러한 검토가 향후 외형적인 성장을 넘어 사회통합이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외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한국사회는 외형적 성장을 넘어 내부를 진지하게 성찰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투명성’과 ‘역설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³²⁾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성과에 눈감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면에서 역설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사회 내부의 부정의와 갈등 요인들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박미애 옮김, 『새로운 불투명성』, 문예, 1996. Martin Hartman, "Widersprüche, Ambivalenzen, Paradoxien-Begriffliche Wandlungen in der neueren Gesellschaftstheorie", *Befreiung aus der Mündigkeit*, Frankfurt a. M.: 2002.

참고문헌

- 강신욱 외,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Ⅱ)」, 사회통합위원회 2011-1.
- 권용혁 외,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2006.
- 김동춘,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길, 2006.
-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집문당, 2008.
- 김원식, 「소수자의 포용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심화」, 국제문제조사연구소 편, 『정책연구』, 통권 150호, 2006 가을.
- _____, 「생활세계 식민화론의 재구성: 배제, 몰화, 무시」,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18집, 2009.
- _____, 「사회비판의 두 유형과 공조 방안」,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21집, 2011.
- _____, 「몰화(物化) 비판과 한국사회」,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23집, 2012.
- _____, 「정의론과 여성주의」,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24집, 2012.
-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그린비, 2010.
- 노대명 외,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2010-2.
- 도정일, 『시장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 생각의 나무, 2008.
-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문진영,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62, no.2, 2010.
- 박길성,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 『한국사회』 제9집 1호, 2008.
- 상탈 무페, 이보경 옮김,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편, 『2009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 선우현, 「한국사회에서 ‘진보/보수 간 이념적 대립 구도’의 왜곡화-대북 정책

- 을 둘러싼 ‘남한 내 갈등 사태’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진보와 보수』, 이학사, 2002.
- 악셀 호네프,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2.
- 올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물결, 2006.
-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박미애 옮김, 『새로운 불투명성』, 문예, 1996.
- 정건화,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동향과 전망』 71호, 2007.
- 조기숙,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31(2).
- 조대엽, 「한국사회의 전환과 사회통합의 패러다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 『한국사회』 제7집 1호.
-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
- 클라우스 오페, 고지현 옮김, 「오늘날 정치적 ‘진보’란 무엇인가?」,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편, 『베스텐트 한국판』 2013/1, 사월의책, 2013.
-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인간사랑, 2007.
-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 현택수,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이론」, 비판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제32권, 1996.
- 홍윤기,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진보-보수-관계’의 작동과 그 한국적 상황」,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진보와 보수』, 이학사, 2002.
- M. 호르크하이머, Th. W. 아도르노, 김유동 외 옮김,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 1995.
- Carlos Thiebaut, "The logic of autonomy and the logic of Authenticity, a two-tiered conception of moral subjectivity",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 23 no. 3, 1997.
-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Christopher F. Zurn, "Recognition, Redistribution, and Democracy: Dilemmas of Honneth's Critical Soci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3:1, 2005.
- Martin Hartman, "Widersprüche, Ambivalenzen, Paradoxien-Begriffliche Wandlungen in der neueren Gesellschaftstheorie", *Befreiung aus der Mündigkeit*, Frankfurt a. M.: 2002.
-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London · New York: Verso, 2003.
- Nancy Fraser,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Dilemmas of Justice in a 'Post-Socialist' Age", *New Left Review* 212, 1995.
- Zygmunt Bauman, *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Exclusion, Reification and Disrespect

Kim, Woen-Sick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evaluation of postwar Korean history seems to be condensed as a simultaneous suc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But it is also certain that the various elements of social conflicts in our society have increased through it. Now, I think, we must need radical reflections about the orientation of development of our society. For these radical reflections, we must above all diagnose and know the inner problems of our society exactl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the synthetical and critical diagnosis about the complex structural elements of social conflicts in our society through the three key words, that is, exclusion, reification and disrespect. For this aim, firstly, I explained the general meanings of these three concepts and their theoretical background. Secondly, I examined the changes of the structure of soci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nd then I distinguished the structural elements of social conflicts in our society categorically and explained their relations of them through these three concepts. Finally I examined the meaning and the remained tasks of this work.

Key words: Exclusion, Reification, Disrespect, Social Conflict

철학탐구 제33집

김원식 e-mail: wonsik1@hanmail.net

투 고 일	2013년 04월 08일
심 사 일	2013년 05월 01일
게재확정	2013년 05월 16일